

「깐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1회)

朴魯哲

冒頭

이 拙論은 猥濫히 이 研究의 題目을 부쳤으나, 그실 一管見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깐디』의 全思想에 있어 그 一面을 取採하여 研究한 小論으로 自認한다. 그리고 보니 한갓 簡楚한 例證만을 들어 瑣談모양으로 늘어 노았다. 좀더 內容을 膽富하게 하려 하였으나, 惝만 길어 잔소리만 되겠는 고로 그 簡要한것만을 추려 대강 엮어 노했다. 이우에 克己에 關한 拙文에다 너흐려 하였스되, 이 역시 長尾에 이를 가하여 惝로 쓴허 두었다. 『깐디』의 宗教思想에 있어서의 그 比較參酌에 약간 拙評을 加하였스되 그다지 新奇한것으로 是 自□치 안는다. 行여 讀者先覺에게 □賞으로서 이바지 된다면 적이 感切할가 한다.

(一) 『사티아·그라하』小論

『깐디』는 自我를 超越한 純醉한 愛他主義者로 보지 안 홀수 업슴은 敵을 사랑하기를 自己 몸과 가티 생각하는데서, 그 博愛의 精神을 차즐수 잇는 것이다. 그는 個人的 人類愛에 잇서 서는 敵(英人)을 自己同族에게 對하는 態度그대로의 親愛와 謙讓을 다하였다. 現時의 英人중에 그를 大聖으로 崇仰하는 者가 간혹 잇슴도 이러한 緣由이라 하겠다. 그는 한갓 英政府의 欺瞞的 行爲와 그 惡魔的 制度及 法律 등을 惡으로 對象하여 受動的 抵抗의 힘으로 鬪爭할 썬이오. 一般 英人에 對하여는 秋毫도 惡을 가지지 안 홀 썬더러 도리어 그들을 辯護하며 愛撫하였다.(筆者는 이를 同感치 안는다)이에 依하여 『깐디』의 侮辱당하든 일을 감간 들어보자.

法庭에서 無禮이 白布를 씻다는 理由로 그 頭巾을 벗으라. 強要할 썬 그 侮辱을 참을 수업서 卽 時退廷한일과 『트란스뽀』가는 길에 一等車를 타다 하야 그 無道한 車掌에게 쫓기어 貨物車에 乘換한일과 썬 『푸레트리아』途中에서 馬車夫에게 두번째나 鐵拳을 바든 일과 썬 그 番兵에게 그 무지한

밭길에 채여 길가에거 꾸러지든 일과 여러번 暴群에게 襲擊當하든일과 刺客에게 生命이 危殆케되든일과 그밖에 處處에서 侮辱 당하든 일은 그 數를 모를 만치 만혔다. 그러나 그는 일향 親切, 謙讓, 忍容의 態度로써 敵을 對하였고, 쏘는 印度人의 暴群과 刺客을 愛撫하였다. 이러 하여 그 敵과 暴徒는 그 偉力에 依하여 『싼디』를 崇仰하기에 마지 안 헛스며, 그를 屠害코저한 刺客은 그의 弟子가 되었다 이른다. 이로보아 그의 博愛器局이 얼마나 雄大함을 알수있다.

이리하여 그의 唯一한 『사티아그라하』를 徹底히 發揮함도 쏘는 그의 受動的 抵抗主義를 現實케됨도 대개 이러한 受難을 거치어 圓熟한 洗練을 엇게 됨이니, 이가튼 洗練을 지나서 그의 人格이 더 完全無垢하게 되었다고, 그는 본다. 이로보아 그는 얼마마한 偉대한 愛他力을 所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스니, 그는 이르되 『內心の 汚穢를 拔棄치 안코는 『스와라지』를 어들 길이 업다. 非 協同은 단지 英人의 精神뿐만 아니라, 吾國人의 精神의 轉換에 對한 歎願이다. 그실나는 그 轉化가 먼저 我國人에게서 發함을 비롯하여 그다음 英國人에게서 이러나기를 期待한다』 하였다. 이는 그 明哲한 叡智에 醞酵된 一大箴訓으로서 그 將來를 判斷하는 徹底的 斷案이며 쏘는 眞正한 鐵則이라 안 홀수 업다. 그는 基督의 寶訓과 가티 仇讎를 自身처럼 사랑 하였다. 이러함으로 『싼디』는 愛의 法則에 對하여 다음과 가티 말하였다.

『愛의 法則은 眞理의 法則에 지나지 안는다 眞理업시는 愛도 업고 쏘 眞理업는 愛는 例컨대 自國을 사랑하고 他國을 害하는것과 가튼 愛가 될 쏘이다』하였다. 基督의 이른바 『남이 올흔 썸을 치거든 왼썸까지 돌려라』한말씀처럼, 그는 完全히 受動的 抵抗主義로써 印度革命을 發揮코저한 一實行者이다. 그 愛의 力에 잇서 서는 基督의 博愛主義와 共通되는 點이 만타고 본다.(예를 들면 『싸울』이 『고린도』敎會에 보낸 札翰중에 『信, 所望, 愛이 세가지는 항상 잇슬것 인대 그중에 第一은 『사랑』이라』(고린도 前書 十三章十三節)한 聖句를 보아도 『싼디』의 博愛思想에 相通되는 點이 잇다고 본다)이러한 關係로 그리 한지는 모르나 그는 基督과잇 山上寶訓을 尊敬하였으며, 그밖에 여러 經典及 聖書를 愛讀하기에 마지 안헛다. 다음으로 그의 讀書熱과 信仰力에 對하여 一例를 들어보자.